한국어

아베몬주인 절—지혜의 부처님

아베몬주인 절은 645년에 창건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사원의 하나입니다. 화엄종 도다이지 파의 특별 본산으로서 격식이 높고 창건이래 기도의 절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국보인 본존 문수보살은 가마쿠라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불상 조각사 가이케이에 의해 13세기에 건립되었습니다. 사자를 타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마귀를 쫓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지혜를 주는 부처님으로서 두터운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몬주인 절은 1300년을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며 귀중한 보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주소	나라현 사쿠라이시 아베645
교통	사쿠라이역 하차 서남쪽으로 2km
Web Site (한국어)	http://www.abemonjuin.or.jp/

지도

배관요금

	어른	초등학생
본당 (말차,과자 포함) 우키미도 당 (시치마이리 기도표, 부적 포함)	1200엔	800엔
본당 (말차, 과자 포함)	700엔	500엔
우키미도 당(시치마이리 기도표, 부적 포함)	700엔	500엔

참배시간	9시 ~ 17시

경내 볼거리

도카이문수보살상 (국보)

우키미도 당

하쿠산도 당/전망대/ 아베세이메이도 당

몬주인니시고분/ 음양도

오모테 산문/ 사철

국보 도카이문수군상

아베몬주인 절은 도다이지 절과 인연이 깊은 절입니다.
1180년에 도다이지 절이 전란으로 불에 탄 후 고승 죠겐스님이
도다이지 절을 재건할 때 그가 두텁게 신앙하고 있던 문수보살을
아베몬주인 절에 건립했다는 사실이 최근의 조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으로 도다이지 절의 재건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재로서 문수보살군상은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사문수보살상

아베몬주인 절의 본존은 문수보살입니다. 아베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으며
4명의 협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협사를 포함한 5개의 불상 모두가 국보입니다.
1203년에 조각사 가이케이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도카이문수라고
불리며 민중에게 지혜를 주는 여행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타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마귀를 쫓는 검을, 왼손에는 보살의 자애와 자비를
의미하는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거느린 4명의 협사는 오른쪽부터
우텐노 왕, 젠자이 동자, 붓다하리 삼장, 사이쇼 노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올바른 삶을 위한 지혜를 주는 부처님으로서 널리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긴카쿠우키미도 당(나카마로 당)

긴카쿠 우키미도 당은 나카마로 당이라고도 불리며 아베몬주인 절에서 출생한 아베나카마로와 아베세이메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198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우키미도 당의 본존은 변재천이며 참배자에게 행운을 줍니다.
참배자는 우키미도 당의 주위를 7번 돌고 소원을 비는「시치마이리 기도」를 합니다.
우키미도 당에서는 절의 보물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변재천

많은 복을 불러들이는 부처님입니다. 팔이 8개 있으며 15명의 동자를 사자로서 거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베나카마로(698-770)

아베나카마로는 698년에 아베몬주인 절에서 출생하여 견당사 유학생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당나라의 조정에서 일본인으로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베세이메이(921-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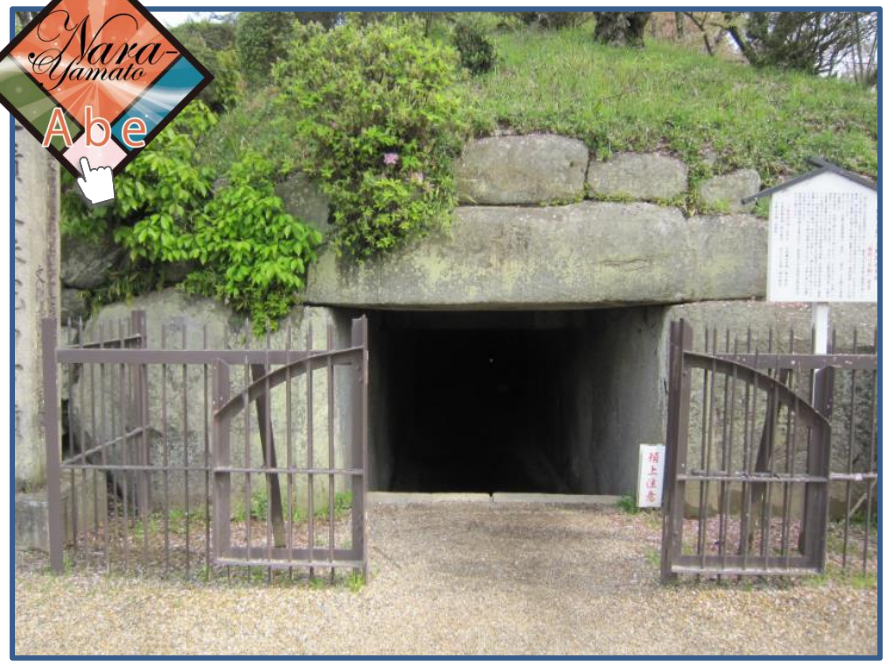
아베몬주인 절 출신의 아베 일족이며 음양도의 개조로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쿠산당

중요문화재 무로마치 시대 (14-16세기) 건립
하쿠산당은 인연을 맺어주는 신으로서 두터운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하쿠산당에 모신 신은 영산으로 알려진 이시카와현의「하쿠산 」입니다.
아베몬주인 절은 음양사 아베세이메이(921-1005)가 출생한 사원이며
세이메이가 영산인 하쿠산을 깊이 신앙하였으므로 이 곳에 말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베세이메이당과 전망대

아베세이메이당에서는 액막이와 방위막이의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베세이메이는 당시 천문관측을 하기 위해 이 언덕에 올라와서
수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매우 아름다우며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서쪽에 있는 성지로서 예로부터 두텁게 신앙되고 있는 니죠잔
산에 지는 성스러운 석양의 모습입니다.



몬주인니시 고분

7세기·국가 지정 특별사적

이 고분은 아베데라 절의 창건자의 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분은 일본 국내에 7곳 뿐이며
그 중에도 이 몬주인니시 고분은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갖춘
고분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분 안에는 고보대사가 손수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불동명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음양도에 대해서

고대 중국에는 음양설과 오행설이라는 우주의 만물을 설명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음양설은 「하늘과 땅, 해와 달, 남과 여」처럼
적극적인 「양」과 소극적인 「음」의 힘의 균형을 설명한 것이며 오행설은
「목,화,토,금,수」의 다섯 가지 원소의 변화로 만물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음양오행설이 되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이에 맞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세기에 일본에 전해진 음양오행설은 길흉을 점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음양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망성 길경인

오모테산문 정문

정문앞에는 한자로 쓰인 하마「下馬」석이 놓여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기서 말을 내려 걸어가서 참배했습니다. 이런 큰 하마석이 놓여 있는 곳은 드물며 문이 세워진 13세기에는 지금보다 더 큰 가람이었다고 합니다. 창건이후 누구나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도록「문」을 한번도 닫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베몬주인 절의 사철

봄·500그루의 벚꽃이 경내를 장식합니다.

오에식 3월 25,26일
기도를 할 때 문수보살의 지혜 주머니를 머리에 얹어 줍니다.

가을·코스모스 미로
30종류를 넘는 코스모스로 만든 미로

겨울·명자나무 꽃